



淫 雨

朴 泰 遠

무슨 꿈인지 한참 서수선하게 꾸고 있는 판이었는데, 꿈 속에 비 오는 소리가 요란히 들리니 오고, 뒤 따라 서린아이 울음 소리가 또 시끄러울지 들리어, 나는 서느름에 내 아이가 잠을 깨어 그처럼 우는줄만 여기고, 나도 그만 잠이 깨어 웃목편을 돌아보니, 우리 一英이는 제자리에서 심리만음 멀리 땀방바닥에가 굴러 떨어져 있기는 하여도, 그저 새근 새근 잠만 잘 자고 있었고, 우는 아이는 동에서 울기로 이름난, 자근뿔이 타나, 언덕 위 토막에서 사는 인부의 끝의놈이었는데, 정작 비는 역시 우리 집에도 한결 같이 퍼붓고 있었다.

(은, 도대체 무슨놈의 비가.....)

하고, 나는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자고난 입 속의 쓴 침을 좀더 쓰게 삼키며, 그때 그때 따름 속에 일론 감정의 토막을, 그 즉시 마음 속에서 한토막의 글로 표현하여 보는 것은, 이미 나의 중학시대부터의 오랜 버릇으로, 이때도 문.

(—그러나 비도 그처럼 연일 즐기치게 오고 보니, 그는 이제는.....) 하고, 「나」를 「그」라고까지 고쳐서, 화를 낼 생각도 없어졌다. 뜻은 달리

좀더 적절하게 표현할 도리는 없을까 하고, 그러한 것을 잠깐 구리하여 보았던 것이나, 문득 건넌방에서 안개가 몇번인가 희를 차며, 대야에 다물초가 된 걸레를 쥐어 짜는 소리를 듣고는,

(은, 그대, 이놈의 비가.....)

하고, 역시 저주하는 생각을 금할 도리가 없었다.

참말이지 그것도 하루 이를일세 말이지, 똑 오늘까 지 스무아흐레째 나리는 비가 언제, 잠깐 실비가 되어 가만히 뿌리는 빙도 없이, 그 세찬 폭이 폭한 절 같았다.

이 잠마가 시작되자 이를날 밤에 안방 쌍창미닫이 우의 반자가 새기 시작하였다. 나는 눈살을 잠깐 찌프리고, 안해는 희를 몇번인가 차고, 사기 대야를 갖다가 떠러지는 물을 받았었다. 다시 사흘째 되는 날 낮에는 다락 앞력 반자에 천씩 하고 흙 떠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곧 물을 먹기 시작하여 언저리가 자꾸 넓어지며 두어시간 뒤에는 마침내 평하고, 반자가 뚫어져라도 바루 크게 뚫어졌다. 우리는 다시 희를 차고, 눈살을 찌프리고 이곳에 다가는 생철대야를 갖다 놓았다. 그리고 그날밤은 식구가 모두 사랑에서 자기로 되었다. 그런데, 밤중에 안해가 혼들어 깨우기에 눈을 떠보니 까, 안전화타타 민있던 이방도 결코 안전한 곳은 아

니어서 반침 앞력 반자가 사발 들레만하게 물을 먹고 있었다. 결국은 뚫어지고야 말 것을, 만약 그대 두어 두면 언저리만 더 넓어질 것이나, 아주지레 구녕을 더 놓자는 안해의 말이 근리하여, 부채자루로 한 복판을 꼭 찌르니까, 미처 팔을 비킬 사이도 없이 한 주주는 실하게 고였던 물이 나의 소매 속으로 떠러졌다.

「빌어먹을!」 소리가 제풀에 입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나로서도 어찌하지 못하며, 양자기대접이라도 하나 갖다가 빗물을 받으리라 하고 부엌으로 들어 가려다가 안방에는 또 새로 새는데나 없나, 그것이 문득 중금 하여 방부터 들어가 보니, 새로 새는 곳은 없었으나 이왕 새던 다락 앞력이 좀더 범위가 넓어져서, 예제서 멋대로 떠러지는 물이 그까짓 생철대야 하나쯤 으로는 어림도 없어, 대야를 중심으로 그 일대가 그대로 물천지다.

「빌어먹을!」 소리를 또한번 중얼거리며, 나는 다락으로 올라가 어둔 속에서 한참을 더듬어, 가파스로 방자대야를 찾아들고 내려 왔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역시 부족하여, 나는 세번째 「빌어먹을!」 소리를 하고, 다시 다시 다락에서 어린것들 목록에 소용인 큰 사기대야를 끌어 나렸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생철대야를 들고 사랑으로 내려 갔던 것이나, 안해는 그때까지 차

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가 또 재요? 다락엔 왜 들어 갔었어요?」

문고나서, 문득 생각난듯이,

「참, 블 고구 내려 왔우?」

하고, 미간을 약간 찡그린다. 나는 심사가 좋지 못하여 잠깐 밤을 물고 앉았다가,

「당신 좀 가서 고구료.」

별로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英이가 잠이 설개어 갑자기 울었다. 나는 좀더 심사가 좋지 못하여, 어린것임에다 짓푸지를 물리는 안해의 꼴을 잠깐 열눈으로 보다가 혀를 차고 일어났다.

「아주 거는방두 좀 보시죠.」

나는 대답을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안방 불만 고고 도루 내려 가려다가 그래도 그렇지가 않아, 건넌방 미닫이를 열고 불을 잠깐 켜보았던 것이나, 이번에는 하기가 막혀 「발어먹을!」 소리도 안 나왔다. 다섯시간전에 우리가 사랑으로 자러 내려갈때까지도 아무렇지 아닌 건넌방이, 이것은 참말 뜻밖의 일로, 명색이 서재랍시고 책장 들을 나란히 붙여서 세워 놓은 바람벽 위를, 도리에서 직밀까지 그대로 빛 불은 줄줄이 흘러 나리고 있었다. 이름이 책장이지, 그냥 대여섯층 선반이 놓였을뿐으로 뒤는 그대로 터진 것이다, 무어 책 몇권 뽑아서 새삼스러이 볼것도 없

는 노릇이었다.

(에이 몰르겠다.....)

나는 미닫이를 탁 닫아 버리고, 그 즉시, 참 불을 또 견채로 두었고나, 깨달았으나 그냥 사랑으로 내려 와 버렸다.

안해는 그 사이에 어린것을 재워 놓고, 자기는 그대로 뜬 눈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심사가 매우 좋지 않은 얼굴을 껴고 그는 얼마동안 망설거리다가, 한껏 조심스러운 어조로

「거는방은 꽤 참아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그렇게 조심스러히 물어도 중시 대답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그는 뽕연코 사례가 심상치 않은듯이 추측되었던게지, 다시 얼마동안 망설거리다가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두르고는 안으로 들어 갔다. 그리고 건넌방 미닫이를 여는 소리가 나자, 뒤미처

「아이, 이걸 으떡해애?」

하고, 안해가 혼자 짜증 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또 혀를 차고, 자러 우애가 앉은채 담배를 한개 피어 물었다.

「아이, 이걸 으떡해애?」

말은 먼점번이나 똑 같았으나, 이번에는 날더러 드르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잠깐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그는 가뜩이나 빛소리에 엇갈리어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몇마디 증얼거리는 모양이더니, 조금 있다 광하고 마루장 울리는 소리가 난다. 책장을 옮기려고 책부터 마루에다 내어다 놓는 것이 분명하여

(이왕 버린걸, 날이나 밝건 하지 않구……)

무어 내가 거들어 주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년밤중에 수선을 떨것두 없지 않느냐고, 담배만 빼먹백 빨고 있으려니까, 광 소리가 두번이 더 나고, 세번째 가서,

「좀 울러 와요。」

하고, 마침내 안해의 쇠된 소리가 나를 불렀다. 왜그래? 하고, 소리를 한번 지르려다가 자는 어린것들이 놀랄가 보아 잠자코 있는데, 문득 문간방에서 할멈이 골독 골독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울러 와서 이것 좀 왕겨 와요!」

안해의 쇠된 소리가 또한번 들렸다. 나는 역시 그 말에는 대답 없이, 잠깐 문간방의 기척을 살피다가,

마침내,

「할머—엄!」

하고, 불렀다.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으나, 나는 상관않고 다시 한번 불렀다.

「할머—엄!」

307 역시 대답은 안들리고, 대신에 안해가

「아이 필요! 왜 자는 사람은 불루?」

하고, 투 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나는 할멈이 자지 않고 있을것을 광 믿고 있었다. 바로 조금 전에 기침소리를 들었던 까닭만이 아니다. 잠귀가 밝다는 것은 그의 영소의 자량이었다.

제 사랑을 하는데 미쳐서, 우리 내외처럼 잠귀 질긴 사람은 없은 것이라라고 때때 비웃기조차 하고,

「우리는, 참, 잠귀 하난 밝조. 아무리 끈히게 자다가 두, 무슨 소리만 한번 나면 벌떡 일어나니까요。」

에게 하는 소리가 그 소리다. 그 사이 내가 두차례를 안으로 드나들고, 안해가 또 들어 가고, 대청에

광 소리가 서너차례나 났으니 잠귀 질기다는 우리도 그만하면 잠이 깰을 것이다. 그러나 시키지 않는 일,

구태어 자원해서까지 할 까닭 없다고, 돌아 누어 다 시 잠을 청한다면 그도 그만이다. 허지만 내가 두차례씩 불러도 모른체 하는데는 은근히 패심한 생각이

들 밖에 없어서, 나는 돌직번것보다도 훨씬 더 큰소리로,

「할머—엄!」

하고, 불렀다. 그리고 제 소리에 놀라 一英이편을 보러니까, 어인 까닭인지 그애는 몸을 솔직 뒤척임으로써 그치고, 내옆의 雪英이가 언제 자드나싶은 눈을 뜨고 그렇게 뜨고 나를 치나다 보며,

「아빠! 아!」

한다. 그래도 내가 대답이 없느냐 하고 잠깐 숨조차 험악하게 쉬어 보려니까, 바루 금방 잠이나 갠 사람 인듯싶게 졸리운 목소리로

「내! 에?」

하고 할멈의 대답이 들려 왔다.

「아빠! 아!」

雪英이는 한팔을 내 무릎 위에 얹이고 다시 불렀다. 나의 험악한 표정이 어린 마음에 솟구스러운 모양이다. 나는 어린것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본의는 아니었으나, 약간 부드러운 음성으로,

「거는방에 좀 가 보오!」

하고, 문간방을 향하여 일른 다음, 그제야 자리에 누어

「어서 더 자거라. 지금 밤중이야.」

팔베개하여 雪英이를 다시 재우며, 나도 잠을 청하였던 것이나, 완전히 잠이들기 전에,

「이걸 글썽 으쩌우? 그냥 반자가 새서 낙수가 떠

러지는 것두 아니구... 이러다 벽이나 두려 빠지

면 으째?」

「아이, 설마 벽이야 두려 빠지겠소마는, 당장 끈란이

준」

「할멈 방은 앞새나?」

「안새는게 뭐유? 웃묵 저편 구석에서 낙수만 잘 떠

러지는데.....」

「그대 으떡 했어?」

「자다가 일어나 우선 양철통을 갖다가 왔소.」

「많이 새?」

「그리 대단친 않지만.....」

「그러니 안새는 방이 없구면.」

「웨, 사랑두 새우?」

「사랑두 반침 앞이 새애.」

「그럼, 찬방 하나만 안새는 셈인가요?」

「그것두 누가 알어? 보질 않았으니.....」

「내 좀 보구 오까요?」

「아이, 책장이나 다아 옮기구 봅시다. 온, 어떤 녀

석이 기왓 이따위루 예와서 이 고생이야?.....」

연해 마루로 책을 날리며 안해와 할멈의 주고 받

는 소리가 들려 와서, 나는 그날 새벽에, 기와쟁이와

청부업자를 섬들 아래다가 끌려 놓고, 할멈을 시켜서

불기를 치는 꿈을 꾸었다. 이 봉건적인 사상은 근래

내가 되풀이 읽은 「林巨正」에 말미암은 것인지도 모

를 일이다.

그러나 나는, 사실, 그럴수가 있다. 치더라도 청부업

자와 기와쟁이를 불러다가 불기쯤 따리는 것으로는 시

원치 않도록, 그토록이나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대

음을, 제 스스로 어찌 할수 없었다.

찬방까지 쳐서 방 다섯이 아니 새는 방이 없는데 그것도 그냥 새기만 하는 것이라면 날이나 든 다음에 기와나 말짱하게 고르고, 뚫어졌던 반자나 좀 때고 보면 뒤가 감쪽 같을 수도 있겠는데, 건넌방처럼 바람벽 전체 로그처럼 물이 흐르는 것은, 개인 뒤에 고칠 걱정도 걱정이려니와, 당장 신성한 대책이 없는 것이 딱하였다. 우리는 하는 수없이, 절레, 발절레, 현수건까지 몰아다가 죄말을 주욱 일짜로 눌러 놓고, 그 저 이십분만큼씩, 삼십분만큼씩, 문득 생각만 하면 들어가서, 그 사이 훌쩍 물을 먹은 절레를 대야에다 쥐어 짜고 쥐어 짜고 하였다.

안해는 몇번인가 나더러 밖에 나가 지붕 위를 살펴 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험사리 그의 말을 뜻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날이나 든 뒤라면 또 모를 일이었다. 당장 비가 이처럼 억수 같이 퍼붓는데 우산을 버리고 집 뒤로 돌아다니며, 오오라, 저어기 솟기와가 한장 뱃겨졌는지, 오오라 조오기 앞기와가 두장 깨어졌는지 하고 혼자 고개를 고뎠어려 본댓자, 당장 우중에 어찌할 도리도 없는 터에, 남의 눈에는 흠사 일흔놈 같이 밖에 안보일것이다. 설혹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다 손 치더라도, 혼자 좀더 답답할 것은 정한 이치라, 그때 나는 방 속에만 들어 앉아 있었는데, 새는 것

도 새는 나름이지, 글썽 바람벽을 토옹히 덮어 가지고 그처럼 빗물이 줄줄이 나리는 까닭은 도무지가 알 길이 없는 노릇이라, 그때, 장마가 시작되지 따세 되는 날 아침, 나는 마침내 세수도 안한채 우산을 말고집 뒤로 돌아가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즉시 아연천지않을 수 없었다. 무어 기와가 한두장 깨어졌다거나, 뱃거졌다거나, 혹은 물러 앉았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대체 어찌 된 노릇인지 건넌방 바람벽 위를 주욱 일짜로 덮어나려 온 용마루 전체가, 어처구니없이도 그냥 좌우로 쓸어져, 그 대부분은 아무짝에 쓸데 없는 파편으로 변하여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우에가 떠러져 있었다.

나는 곧 짐으로 들어 와, 마루 위에가 단정히 앉은 다음, 부엌에서 마침 찌개를 마련하고 있는 할멈에게 명하여, 조반은 좀 늦게 먹게 되더라도 상관치 않으냐, 곧 가서 청부엌자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야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도저히 완전이라는 것을 기약할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기와 있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도 전에 들은 법하다. 하지만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아니다. 용마루 전체가 그처럼 허무하게 나가 떠러져, 바람벽 전체로 원통 빗물이 나려 흐른다는 것은, 아무리 일을 날렸다손 치더라도 분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거든 한번 특

특이 따져 봐야 할 일이다.

내가 마루에 걸린 시계를 치어다 보며, 이자가 거
의 을서각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려니까, 이웃
집에 개 짖는 소리가 요란히 나며, 언덕 길을 누가
나려 오는 모양이다. 나는 자세를 좀더 정중하게 가
지며, 어고제 아침의 꿈을 생각해내고, 그 가증한 청
부업자가 문 앞에 나타나니 길로, 들보가 쟁쟁 울리
는 큰 소리로, 저놈 잡아라 풀려라 하고 호명을 한
번 나리면 열마나 통쾌 할까 하고, 그러한 난데 없
는 생각을 하여 보았던 것이나, 정작 계문으로 들어
온 것은 할덤 하나로, 가보니까 청부업자는 벌써 어
더 나가고 집에 없더라 한다.

「그럼, 이따래두 들어 오거든 곧 오대야지, 그냥 오
면 으떡 하는거야?」

「그렇게 일르구 왔세요。」

나는 쓰디쓴 취를 한덩어리 삼키고, 주위를 까닭 없
이 한번 둘러 보았다. 밖들이 새벽 제자기 저 있을곳
을 잃은 세간은, 제 자리 아닌 곳에 가 아무리 바로
놓이려도 바로 놓일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 집에 있
는, 사방 열두자의 이 벽은, 특히 나의 마음에 드
는 처소로서, 나는 애초에 이곳에다는 조고만 탁자하
나 놓으려고도 안하였다. 안해는 너무 쓸쓸스러워 보
여 멋 없다고 말했어도, 나는 오히려 시원스러움을

취하여, 그곳에다 깨끗한 돛자리나 하나 띄 놓고 누웠
다. 앉았다, 한 여름 서늘하게 지내어 볼까 하였던 것
인데, 이제 그것은 부지럼은 한마당의 꿈이었다. 유독
이 시간마루 하나만 새지 않는다 하여, 본래 다른 방
의 세간이었던 책장이며, 책상이며, 머리장이며, 축음기
며, 이러한 것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
이고, 또 유리창 분합 바로 안에는, 나의 구두며, 안
해의 고무신이며, 아이들의 운동화와 같은 것이, 비록
안해는 간츠런히 놓느라고 하였던 것이지만, 본래 제
자리가 아닌 곳에 진렬된 그것들은 오직 좀더 어수
선하고, 보기 흉할뿐이었다.

나는 문득, 저것들을 지금 당장에, 말끔 눈에 띄지
않을 곳으로 치워 버리자 소리치고싶은 충동을 느꼈
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것을 가파스로 억제하였다. 치
워버려야 방마다 비가 새는 현상으로는, 이제 남은
곳이란 오직 광 밖에는 없었고, 광이란 물론 그러한
것들을 수용할 곳이 아니었다.

그러자 나는, 문득, 나의 큰달 露英이가 방 구석에
서, 무어 먹은 것을 좀더 달라고 저의 어머니를 조
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 내
가 아이들 교육에 대하여 등한히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
면 그 방침이 그릇되었거나 하였음에 틀림 없다는 것
을 깊이 깨달았다. 아이들이란 너무 권여워 할것도 아

니였고, 버릇 없이 기를 것도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때때로 꾸지람을 차리라——나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내 자신으로도 좀 지나치게 컸다고 나중에 뉘우친, 그처럼이나 엄청나게 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새벽에 빵 한개 먹었으면 그만이지, 뭘 또 달랠구 졸르니?」

말이 채 떠러지기도 전에 나의 큰말은 잠깐 입을 때쭈거리며 불 사이도 없이 울음을 보를 뿜드렸다. 큰아가 울자, 작은아이도 곧 따라 울었다. 小英이는 무엇 이든 저의 형이 하는대로다.

내가 잠깐 우울하게 입맛만 다시고 있을 때, 마침 머리를 빗고 있었던듯싶은 안해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웨, 패애니, 애한애 화를 배우 그러우?」

그러나 나는 이미 그보다 먼저, 내가 아이를 꾸짖은 동기에는 불순한 분자가 섞이어 있었다고 스스로 깨닫고, 성현의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새삼스러히 기억에서 찾아내어, 은근히 뉘우치고 있었던 터이라, 그러한 안해의 책망은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참지 못하고,

「웨, 시고럽게 이래?」

하고, 안해를 한참 한따디 소리쳤던 것이나, 다시 도

리켜 생각하여 볼 때, 이 경우에 안해를 꾸짖을 정당한 이유가 내게는 없었다.

그러나 그 즉시, 나는 다시 이번에는 잘되었든 못되었든, 한번 화를 냈으면 낸 것이지, 무어 그까짓 것을 가지고 나는 이루 반성을 하고, 어찌고, 오직 나의 마음만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일까?——도무지가 내 인물의 변변치 못한 소이라고, 문득 그러한 내 자신에 걸잡을길 없이 화가 치밀어, 이날 아침, 나는 반주를 다룬 때의 몇곰절 더하고, 마침내 밥은 한술도 안뜯 채 상을 물렸다……

청부업자가 찾아 온 것은, 이날 밤 늦어서다. 나는 그가, 다시 또 불르러라도 가기 전에는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가, 그처럼 갑자기 나타났을 때, 나는 그를 대하여 당당히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신적준비가 없었다고 할 밖에 없다. 더욱이 내게 있어 불타하였던 것은, 그때 마침, 나는 마루에가 똑 바로 들어 누어, 一英이를 나의 배우에다 올려 앉혀 놓고, 이제 겨우 들 바라 보는 것만에는 결코 말을 할줄도 들을줄도 모를 것임에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나의 어린아들이 이미 한개의 소학생이나 되는듯싶게,

「너, 숙제 다 했니?——응.」

「응아 뭐냐? 네애, 해안지. — 네애.」

「그럼 일은 자거라. 널 드일죽 일어나서 학교 가야 안허니? — 널은 공일인데 무슨 학교를 가야?」

이러한 종류의 일문일답을 나 혼자서 시험하고 있던 것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대청에서 바로 빠 안히 바라 보이는 중문과 대문은 이때 모두 활짝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뜻밖에 우리 집 문전에 나타난 청부업자에게 여지없이 이러한 현장을 발작 당하고 야 막았고, 그러한 현장을 발작 당한 직후에도 능히 투쟁적이기는, 나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 아니라도 좀 어러웠을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좀 당황하여 차였다.

「아, 우중에 어떻게 오시래서.....」

「원, 천만에..... 오늘 문안일 좀 불일이 있어서

그래 늦었습니다.」

「저어, 사랑으루 좀 들너 오시죠.」

나는 땀을 아래다 그를 끌어놓고 매를 치려던 것도 있고, 도리어 젊잖은 손님이냐 되는 듯싶게 그를 사랑으로 칭학하도록 들었다.

「아, 저기가 새는구면요.」

그는 반쯤 앞의 반자 뿔이진 곳과 그 밑에 놓여 있는 물 받든 그릇을 보자 제편에서 먼저 말하였다.

「네. 새, 이렇게 우중에 오시란 것두 다름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경우에 공연히 조금하게 굴어서는 불리할 것을 생각하고, 젊잖게 이야기들 내놓으려 차였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도 안하였다.

「네, 다아 알구 왔습니다. 아, 지붕이 새서 음마나고 생되십니까?」

「글쎄, 새두 어디 이만 저만 해야.....」

「네애, 압니다. 많이 생을깎니다. 어디, 이번 장마에 안샌집 있습니까? 다아 생으니까요.」

「글쎄, 새는 것두.....」

「몇십년 동안 안생다는 집두 이번 비에는 다아 생으니까요. 비가 조음 많이 왔습니까?」

「아아니, 글쎄 새는 것두 분수가 있죠. 이전 그저방 마다 안새는 방이 없구.....안에 잠깐 거치 들어가 보실까?」

「아아니, 뭐, 보지 않아두 다아 압니다. 다아들 생는데 선생 맥이타구 안생겼습니까?」

「그럼, 새는건 할수 없다 친구서, 지금 아주 큰 문제가 거는방인데.....」

「거는방이 그중 많이 새죠?」

「새는게 아니죠. 그냥 두려 빠지다싶이 왜가지구, 바람벽으루 원통 주을출 빗물이 흘러내리니까.....」

「그럴겁니다. 내, 아까 밖에서 살펴 봤는데 그쪽 용마루가 해졌드군요. 그러니 안그럴겠습니까?」

「대체 어떻게 기와쟁와가 조화를 부렸게 용마루가 그필이 되나요?」

「조화를 부렸다니……원, 선생두, 하, 하, 하……」
「그, 웃을 일이 아니죠. 아무리 일을, 허술히 했다 치드래두……」

「일은 허술히 안했습니다. 누가 허술히 하게 가만 두 나요?」

「그럼 원태가 서투른 기와쟁인게로군。」

「결코 그렇지 않죠. 일 참 얹전히 잘하죠.……현태, 그게 그렇죠. 선생덕 기와 잇구 나서, 언제 비 한번 왔습니까? 내리 가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와장 밑의 흙이 바짝 마를대루 다아 말랐죠. 그게 비가 좀 이따금씩 솔솔 뿌려 줘야만 되는걸 내리가물어서 흙은 흙대루 바짝 마르구 기와는 기와대루 떠서, 그대 이번 억수장마에 용마루가 그모양이 된게죠. 그렇게 새루 집 짓고 들면, 장마 한번 뽀구 기와 다시 고르는 법 아납니까? 인제 선생댁두 비 고침법에 한번만 기와 고르면 그뒤는 아무 걱정 없지요. 하여튼 비나 좀 고쳐야겠습니다. 날이나 들어야 어떻게 안해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잡자기 몸을 일으켰나.」
「그럼, 실례합니다. 밤에 또 누구 찾아 온단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참, 기와는 나중에 고른다 치구……벽을 으떡 허나요?」

「벽을 으떡허다니요?」

「거는방 벽이 벌써 식거떻게 썩어가지구 냄새가 당해내는 수가 없으니, 그건 천생 모두 뜯어 버리구 원통 새벽칠 다시 허구 그대야만……」

「아아납니다. 그러 하면, 선생, 손해만 더 보시죠. 뜯긴

웨 뜯나요? 날이 벽적 든 벽에, 벽이 바짝 말르

거든 비를 가지구 곰팡이 쓴 것을 말짱하게 쓸어

버거든요. 그러구 나서 종이 한결만 살짝 발타 놓면

잡작 걸죠. 뜯다니 말이 되나요? 선생, 손해죠. 손

쉽니다.……그럼, 안령히 주릅쇼, 난, 끝 가 봐야

만……」

청부업자를 보낸 뒤, 내가 혼자서 또 심사가 좋지 못해 담배만 태우고 앉았으려니까, 아이 셋을 다 재우고난 안해가 내게로 나왔다.

「갔세요?」

「응」

「그대, 지붕 고쳐 준대요?」

「……」

「지가 감독 잘못해서 그런게니 지가 고쳐 봐야 옳지.」

「듣기 싫어. 집이 다 되기 전일세 말이지. 손 떠

구, 끝전 받구, 그 뒤의 일을 누가 안답따까?

「아아니, 그래두 말은 한번 해볼일이지。」

「되지 않을것 말은 해 켈 해?」

「그럼, 청부업잔 뵈러 허러 부르셨수?」

「.....」

「은, 승검기두 허우. 다진다드니, 보니까, 말 한마디 번

번히 못허데. 패애니 집안에서만 기승을 부리구.....

「.....」

「정작 남허구 마저야 켈 정우엔 말 한마디 못

허구.....」

나는 안해의 늘어 놓는 말이 모두 사실이였기때문

에, 정당히 반박을 못하였고, 정당히 반박을 못하였

기 때문에 좀더 우울하였다.

「자아, 남된 라박은 그만 허구, 남였거든, 소주나 한

잔 데 주。」

「술은 띄두 찾는군. 무슨 흥이 나서 술은 또 자시

겠다우?」

「흥은 무슨 흥이야? 내가 언제 흥이 나서 술먹

음따까?」

그것은 이미 나에게 있어서는 한개의 슬픈 비릇으

로 굳어 버렸거니와, 나는 무시로 술을 탐내었다.

흥이야 일거나 말거나, 시름이야 있거나 없거나, 벗이

야 찾는 마든, 안주 마련이야 되었든 안되었든, 나는

무시로, 참말 무시로 술을 탐내었다.

언젠가 나의 누이는,

「오빠는 아마 술에 인이 백이셨나 봐야. 안그러우,

언니야。」

하고, 내 안해의 동의를 구하였고 내 안해는 떠들한

얼굴로,

「그러게 걱정이요。」

하고 나를 얼는질하여본 일이 있거니와, 인이 백였다.

는 그 말이 나의 귀에는 몹시 거슬렸어도, 그래도 역

시 나는 스스로 그 말을 수긍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집에 들어 앉아 글 한가지 쓰는 밖에는 늘 몸

이 한가로웠고 술값 마련이 있는 동안은 하루 세때

끼니에 반주를 거의 걸른 일이 없었다.

내가 이곳 돈암정에다 집을 짓고, 문안서 반이하여

은 것이 유월초순——, 나오자 한이레도 못되어 우러는

이미 단골 술집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할멈은, 때때

로, 그것이 무슨 자랑이나 되는듯싶게 술집에도 술

이 귀하여 이제는 저의 집으로 먹으러 오는 손님의

에는 팔기들 좋아 않는데, 자기만은 일굴이 익어서 두

말 않고 내준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여 용하게 구

하여 온 한되의 소주는, 내가 가장 규모 있어 별러

서 먹더라도 이들을 못넘기었다. 나는 언젠가, 한병 술

을 이들에 별러 먹은수 있다 하고, 단달에 몇병의 술

이 필요한가 계산하여 보았더니, 그것은 일부러 계산하여 볼것도 없이 열다섯병으로, 정확하기를 기약하여 필산까지 하여 본 결과, 그것은 일개월 삼십칠원오십전의 부담이었다.

이것은 斗酒를 不辭한다는, 이른바 주호들에게 있어서는 겨우 한때의 흥을 도읍기에 족하다 할 수량이 있었어도, 가난한 선비에게는 확실히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금액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새삼스러히 마음에 놀라 하며, 이제부터 술을 삼가고 창작에 정진 하리라 마음 먹어 보았다. 참말이지 내가 창작을 게을리 한지도 어언간 일년이 가까워온다.

나의 안해는, 술 시중과 같은 것 말고는, 대개의 노동을 나를 위하여 싫다 않고 하여 주는 것이었으나, 그중에도 나의 책상을 정돈하는 따위의 것에는 진심으로 성의와 열정을 가졌다. 이땅에서는 글만을 써가지고는 살림이 기름질수 없었으나, 안해는 이미, 나에게 글을 쓰는 밖에 아무 다른 재주가 없는 것을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고 있는 동안은, 그는 모든 슬픔이나 괴로움을 잊고 있는듯싶었고, 또 잊으며 노력하는듯싶었다. 아니 한결을 떠나아가서는 그는, 자기가 이땅의 한개 예술가의 안해인 이상, 가난과 관계 인연이 맺어진 것에는 오직 애달픈 탄원을 갖

고, 다만 자기의 변변치 않은 남편이 비록 변변치는 않으나마, 그대도 문장도에 정진하고 있는 것에 가없는 행복을 느끼려 하는듯이도 보였다. 그렇게 본것은 단순한 나의 感傷에서이었을까? 그러나 感傷이면 感傷이라도 좋았다. 그 가없는 기쁨이나마, 나는 오랜동안 안해에게 주어 오지 못한것던 것이다.

날이 날마다 비는 줄기차게 쏟아지고, 방마다 반자가 새는 말아닌 집 속에서, 문득, 양이 좀 파한 반주에 취기가 내 몸을 돌면, 나의 마음은 애달피도 안해와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한 없이 외롭고 또 슬펐다. 가난한 나에게 시집 오기 때문에 안해도 똑같이 가난하였고, 가난한 이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것들도 나면서부터 가난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야 사 람은 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가난한 속에서, 좀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여 보아야만 마땅 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 만일 약간의 재물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 내 안해와 내 어린것들을 좀더 행복되게 하여줄 방도를 구할수 있을듯싶어 마음이 늘 설레었다.

(— 그의 안해는 그,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곧잘, 「나」를 「그」로 고쳐서, 마음 속에서 나의 사상을 글로 표현하였다.

(—) 그러나, 그것은, 혹은, 순수한 사랑과 존경에서만 비저진 사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미 일곱 해를 고틀을 가치 하였고, 고틀을 가치 하는 일곱 해 동안에, 그들의 사이에는 이미 세 어린 생명이 달려 있어, 그래, 그의 안해는 이미 청년이며 연애며..... 그러한 모든 것에 애담게도 단련을 하고, 믿음성 없는 남편에게나마 그대로 장래를 의탁하러는데서 나온 감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 마음 속에서 펜을 멈추고

(참말 그럴지도 모른다.....)

하고, 잠깐, 또 외로웠다. 그러나,

(—) 그것은 그도 막연하게나마 눈치채고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안해가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전혀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는 그의 안해를 부족하게 여긴다거나, 섭섭하게 안다거나,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의 안해는 이미 세어런것의 어머니로, 그에게서 소녀의 순진과 정열을 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안해의 앞에는 오직 진지한 생활문제만이 가루 놓여 있을뿐이다...)

나는 문득 눈을 뜨고 빗물이 새는 반자를 똑바로 치어다 보았다. 그곳에는 두어마리의 파리가 나래를 쉬고 앉아, 한참 단장하기에 골몰인듯싶었다.

(하지만 안해만이 아니다. 나도 이미 청년과 결별한

지 오래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연애와 예술에 매하여, 아무런 열정도 자신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나는 문득 그러한 것에 생각이 미치고, 스스로 당황하여 하였으나, 스스로 그것을 「나나라!」 할 용기도 자신도 상실하고 있었다. 연애는, 오히려 아무래도 좋았다. 일찌기, 나의 일생을 절려 하였던 문학에, 나는 정열을 상실하고 있는지가 오랜지도 모를 일이다.

연젠가 나는 관상을 보인 일이 있거니와, 당시의 관상론 속에는

「育臟造化

腦多空想」

의 문구가 있었다. 나는 그가 용하게도 나의 타고나온 천분을 알아 내인듯싶게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었다. 북을들어도 도무지 쓸 것이 없는 근래의 나였다.

나는 오늘 낮에 다시 배달된, 원고독촉의 速達郵便을 생각해내고 마음이 초조하였다. 이주일 전에 원고부탁을 받을 때, 나는, 내가 쓰려고만 들면, 앞으로 일출안에 무엇이요 하나 만들어놓지 못하겠느냐 싶어, 선선히 그 청탁을 받아 두었던 것이나, 그것은 이제 와서 생자하니 역시 부지없는 노릇이었다.....

(장다가 시작된뒤 어언간 오늘이 스무아흔에.....)

내가 자리에 누운채, 담배를 한대 피어 물고, 그러한 말을 입에 되풀이 하고 있을 때,

「깨졌어요?」

하고, 건넌방에서 물을 흥뺍 먹은 걸레를 쥐어 짜고 있던 아해의 말 소리가 들렸다.

「응!」

「그만 일어 나세서, 세수하시구, 사랑에 좀 나가 보세요.」

「왜? 누가 왔어?」

「내애.」

「누가?」

「글쎄 내가 보세요.」

「아아니, 누가 왔어?」

「글쎄 내가 보시면 아실꺼 아네요?」

종시 아르켜 들듯싶지 않은 안해에게, 나는 더 물어 볼 것을 단념하고, 자리옷바람으로 사랑에 나가 보았다. 그러나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사랑문은 걸린대로 있었다.

「아무두.....」

하고 나는 안을 향하여 소리치다 말고, 저모르게 눈을 등그렇게 떴다. 건넌방에서 비를 피하여 마루로나와 있던 나의 책상이, 어느틈엔가, 본래, 그곳이 책상 우 리인듯싶게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책상 우 에는 원고지와 만년필, 담배합과 세벌이, 新字典과 朝鮮語辭典 따위의, 내가 글을 쓰는 때의 필요품이 각

기 저 놓일 자리에 놓여 있었다.

나는 처음에 안해의, 이 조고만「작난」을 미소로 대 하려 하였으나, 저도 모를 사이에 미소는 사라지고, 나는 근래에 없는 엄숙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안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혹은, 값 높은 예술작품이 아니 었는지도 모른다. 작품이야 되었던 안되었든, 그가 지금 탐내고 있는 것은 약간의 고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루 그러한 것을 캐어 알고싶지 않았 다. 안해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원고를 쓰기를 바 라고, 나는 그의 원하는 바를 기꺼히 들어 주고싶었다.

(나는 이제 좋은 작품을 하나 쓰리라.....)

나는 책상 앞애가 앉아, 우선 새담배에 불을 붙였 다. 그리고 책상 설합에서 賴信紙를 한장 꺼내어, 그 우에다가 短歌——?——를 한수 지어 썼다.

ワレナガ ラアマリカ
ケヌニアキレタリフツ
カノウウヨネガ ヘヌ
モノカ」クボ

비는 언제 고칠지도 모르게 그저 한결 같이 쏟아 졌다. 그러나 그 빗소리도 이제는 이미 귀에 시끄러 웁지 않았다.

나는 곧 할멈에게, 잡지사예다 전보를치고 오라 명 하고, 근래 드물게 맛보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차차 로이 잠겨 들어 갔다.